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가 올 해도 대박을 터트렸다. 황미르랜드에 펼쳐진 해바라기 정원과 전동열차, 노을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고 있다. <장성군 제공>

# 황룡강 노란꽃잔치 100만명 관람...장성의 가을 낭만 즐겼다

대한민국 대표 꽃 축제로 발돋움한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가 올 해도 구름 관람객을 불러 모으며 대박을 터트렸다.

노란꽃잔치는 연이은 태풍의 영향으로 개막일이 연기돼 기간이 단축됐지만 개막 전날부터 매일 15만 명 이상이 찾으면서 총 100만여명의 관람객이 축제장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흥행몰이 성공의 주인공은 황룡강 3.2km 구간에 장성군이 대규모로 조성한 형형색색의 10억송이 가을꽃 단지였다.

특히 황미르랜드에 펼쳐진 3만3000㎡(1만평) 규모의 해바라기 정원과 두바이 미러링 가든의 작품을 재현한 유엔아이(YOU&I) 가든, 훗카이도 모리노 가든을 옮겨놓은 듯한 드레스 가든 등은 예술적인 연출로 인기를 끌었다.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흥행의 성공 요소였다. 2600여마리의 앵무새를 만날 수 있는 '앵무새 특별체험관'은 가족 단위 관광객의 사랑을 받았고, 귀농인의 성공사례를 알아볼 수 있는 '가든팜페이'와 '엘로우 주말마켓'은 도시민들에게 어필하기에 충분했다.

더욱 맛깔나고 풍성한 축제장 먹거리도 호평을 얻었다.

다양한 정원·앵무새 체험관 인기

요리경연대회·주말마켓 등 성황

장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축제 끝났지만 20일까지 운영 계속

장성군은 노란꽃잔치 개막 전에 메뉴별 현장평가와 심사를 거쳐 입점 부스를 엄선하고 합리적인 가격과 수준 높은 서비스를 갖추도록 했다.

그 결과 음식점마다 긴 줄이 늘어섰고 식재료가 일찌감치 품이 나기도 했다.

축제에 맞춰 연 '황금요리경연대회'를 통해서 지역특화 음식을 발굴했다.

각종 편의시설과 교통편의도 호평을 받았다.

꽃밭마다 꽃길을 만들어 짜임새 있는 관람을 유도하고, 쉼터와 그늘막을 확대 설치해 관람 편의성을 높였다.

축제장 주무대 진입로인 공설운동장 주변도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고 주변 유휴 부지는 주차장으로 조성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장성역-황룡강' 구간에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해 KTX 이용객과 연계

시켰다.

장성군은 노란꽃잔치와 지역상권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화폐인 '장성사랑상품권'을 축제장에서 사용할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축제장 외에 등록된 지역 점포 1000여 곳에서도 10% 할인행사를 동시에 펼쳐 상권과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었다.

축제는 끝났지만 가을꽃의 향연은 계속된다.

군은 축제를 보지 못한 아쉬운 이들을 위해 14일부터 20일까지 '가을 나들이객 맞이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도 향토음식점과 먹거리 부스, 종합안내소, 전동열차와 앵무새 특별체험관은 계속 운영된다.

19일 토요일에는 옐로우 주말마켓과 황룡강 달빛 맥주파티도 열릴 예정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는 군민과 함께 만든 거버넌스 축제"라며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은 5만 장성군민과 관광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 광주·전남 첫 공공실버주택 '누리타운' 건립 기념비 제막

장성군이 광주·전남 최초 공공실버주택인 '누리타운'의 건립을 기념하는 기념비 제막식을 가졌다.

장성군은 지난 10일 유두석 장성군수와 군민,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성을 청운길 누리타운 광장에서 기념비 제막식 행사를 열었다. <사진>

누리타운은 고령의 주민에게 주거와 복지, 보건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원스톱(one-stop) 시스템'을 갖춘 최신키노인복지주택이다.

2015년 건설교통부가 공공실버주택사업을 추진하던 초기단계에는 광역자치단체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장성군은 군 단위 지자체의

고령화 심각성을 피력하고 10여 차례 이를 건의해 사업대상 확대를 이끌어냈으며 사업공모에서 광주·전남 최초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또 타 지역 시군의 사업 잔액을 추가해 최초 사업량(100세대)에서 1.5배 증가한 150세대를 확보했으며,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 164억 원을 국비 지원 받아 올해 3월 준공을 마쳤다.

이날 제막식을 가진 기념비에는 지역 노인들이 누리타운에서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를 기원하는 군민의 마음이 담겼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행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 실버복지 1번지 장성의 명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연이은 태풍에도 황룡강 노란꽃잔치를 찾은 관람객들.



분홍빛으로 몽환적인 분위기를 불러오는 핑크몰리 정원.

## 장성군, 2019 행안부 재정분석 종합우수 지자체 선정

장성군이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서 종합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군은 이에 따라 특별교부세 6000만원을 지원 받게 됐다.

재정분석은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현황에 대해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등 3개 분야 14개 지표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행정안전부의 대표적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지자체 규모를 고려하지 않았던 행정단위별(시·군·구) 평가에서 인구·재

정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별 평가로 전환했다.

장성군은 재정건전성 분야와 관련해 경상수지 비율, 관리채무비율, 통합유동부채 비율이 동일유형 지자체 평균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성군 관계자는 "이미 수억여 부담채무마저 조기 상환해 채무 제로(0)화를 실현했다"며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확보한 부분이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2020 10월 9일 **정읍 방문의 해** 2019~20

# 시민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선진의의회




**정읍 시 의회**  
www.jcc.or.kr